

천진암성지 순례 미사와 안내 내용/ 전국 OB 평협회장단(한평명례방)

**강론: 행복한 신앙생활**

2023.7.30.12시/연중 제17주일 천진암성지(광암성당)

+ 마태 13,45.: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우리 창립선조들처럼 지위와 재물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 참된 보물/하늘나라/천국을 찾으셨고, 천당을 희망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신 그 모범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1>. 우리 창립선조들이 읽은 글 가운데는 ‘직방외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서래공자 西來孔子’로 불리는, 즉 서양에서 오신 공자님 같은 이태리 출신의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 신부님이 지으신 지리책이 바로 직방외기입니다. 첫부분 ‘직방외기자서’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造物主之生我人類於世也/조물주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류를 세상에 살게 하시니라. 그런데 ‘승饗豐醯/풍성한 잔치’를 즐기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곧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觀天象/하늘을 바라보니, 而有日月五星 列宿之麗/해와 달, 오성과 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진귀한 보석 담장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 별들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직방외기란 곧 직방사에서 관할하는 나라들, 그 이외의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명.청 시대에는 지금의 내무부에 속하는 직방사가 있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 대해 관리를 하였습니다. 곧 조선, 일본, 베트남, 류구 등에서 바치는 조공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직방외기란 직방사 관할 밖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컬럼부스와 마젤란의 세계 일주로 밝혀진 이 지구에 대한/오대양 육대주에 대한 이야기가 직방외기인 것입니다.

창립선조들이 읽은 직방외기는 그들의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세상과 우리들을 창조하여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2>. 이 세상에는 3가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곧 식물, 동물, 사람인데, 각각 생혼, 각혼, 영혼을 지니고 있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선구자들이 읽었던 천주실의나 영언여작은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성호 이익, 심설은 천주실의 제 5편의 삼혼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생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성장하려는 욕구(생장지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식물은 영양공급, 즉 먹을 것만 충분하면 무력무력 행복하게 자랍니다.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와 비/물, 적당한 거름을 주면 행복에 겨워 무력무력 성장합니다.

\*\*동물은 각혼(지각지심)을 지니고 있어, 감각이 편하고 자유로워야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식물처럼 충분한 영양공급만 해주고 실컷 먹게는 하지만, 동물 우리와 새장에 가두고 묶어놓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놓아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곧 마음 놓

고 뛰노는 자유가 동물의 특성이요, 행복의 우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사람도 동물이니, 실컷 먹고 뛰노는 것만으로 행복하거라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니,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3>. 그래서(루카 10,27.),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며, 율법학자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 스스로 답하도록 하시면서, “네 심장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신명기 6,5),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기 19,18.)”고 하십니다. 곧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영혼을 지닌 사람에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국에 오신 예수회 신부님들은 愛慕天主 萬物之上/천주를 만물 위에 높여 사랑하고, 愛人如己/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곧 경천애인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라고 하신 본뜻이요, 그렇게 살아야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4>. 오늘 복음에서(마태 13,45.),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창립선조들은 지위와 재물, 명예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참된 보물/하늘나라/천국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간의 행복은 동물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영혼의 큰 기쁨을 추구하며, 천국을 찾으며 실천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시대를 함께 살아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입니다.

참된 행복/ 천국의 참된 보물/ 천주신앙의 기쁨을 창립선조들에게서 배우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 가장 큰 행복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대물림하고, 이웃들에게도 전합니다. 경천애인이야말로 참 사랑이요, 참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창립선조들이 신앙 공부와 실천의 강학장소인 천진암성지에서 깨달아 얻은, 하늘나라의 참된 보물입니다.

5>.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항상 행복합니다. 모든 걱정이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하느님 품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이 삶이 그대로 천당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천진암성지 순례 안내

2023.07.30.10시/ 전국 OB 총회장 19명.

\* 회장님들이 11시가 지나서야 천진암성지에 도착하였으므로, 광암성당에서 11시 반부터 김학렬 신부가 준비한 다음의 내용을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실제 순례는 중식 후에 실행함.

1> **대성당터 입구:** 회장님들, 성지순례 참 잘 오셨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지상낙원의 길을 거닐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진암성지 순례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창립선조들께서 친히 함께 걸어주시면서, 참 신앙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북돋우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창립선조/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며 창립한 자랑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2>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과 124위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주교님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한국교회의 역사가 하느님의 말씀과 직접 만나 시작되었다는 것은 뜻이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아름다움과 진실성이 있어서, 복음과 복음의 요구, 곧 회개, 내적 쇄신, 사랑의 삶에 대한 요구가 ‘이벽과 첫 세대 양반 원로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 메시지에, 그 순수함에,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일어나 비추어라」 p.21).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기억지킴이, To be guardians of memory’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sup>1)</sup>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3월 12일, 사도좌를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교회의 성사생활로 온전히 나타내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첫 제자들처럼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황님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이벽과 첫 세대 양반들이 선교사들의 도움도 없이 한국천주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황사영 백서101행의 내용과 같습니다.: “主恩之於東國/주님께서 은총을 동국 즉 조선에 내리신 것은, 可謂迥越尋常/ 가히 월등하게 크다 할 수 있습니다. 初未嘗有傳教者來/일찍이 선교자가 온 일도 없었는데, 而主特舉斯道 而親昇(주: 김익진 선생 판독)之繼//주님께서 특별히 손을 들어 가르쳐주시고, 친히 손을 맞잡아 주시었으며, 又以授聖事者予 제102행 之/이어서 성사자(즉 주문모 신부)를 보내주시니, 種種特恩 指不勝屈/종종 내리시는 특별한 은총이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 이 백서를 쓴 황사영은 이벽 성조의 생질甥姪인 정명련(후명 난주, 마리아)의 남편이요, 정약용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도움도 없이, 평신도들

1) 참조: 천진암성지홈 > 역사자료실, 81번을 클릭해 원문을 확인해 보라.: [http://chonjinam.or.kr/client/form/viw.asp?p\\_idx=204&cpage=4&Search\\_code=0&Search\\_text=](http://chonjinam.or.kr/client/form/viw.asp?p_idx=204&cpage=4&Search_code=0&Search_text=)

이 자발적으로 공부하여 창립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 족보설명: 남보 참조.** 정약용의 만형수=이벽의 누나이다. 정약용의 매형=이승훈인데, 약용의 만아들 정학연의 처남이 또한 이승훈이다.

정약용 4형제(남하덕녀 소생/약현, 윤덕렬녀 소생/약전, 약종, 약용)의 외종 사촌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이다.

+ 복자 권천례 데레사와 조숙 베드로 동정부부(참조: 일성록 1817.5.7.)가 도움을 준 성정하상 바오로는 인척관계였기에, 정하상의 북경 여행을 도왔다. 권일신과 함께 피정을 한 조동섬 유스티노 집안/한양조씨 족보에 정약종의 혼인 기록이 나온다.

3> **道中:** 정약용이 이벽 성조를 찾아 천진암으로 갔던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777년 시문, 증이벽/이의수불개 칠요질서권.

1779년 천진암강학/이벽의 첫 강학에 정약전과 함께 참여했다고 다블리는 기록함.

1797년 단오일배이형유천진암: 이벽독서처./이후 동부승지사직소. 참조: 游天真菴記.

1824 천진소요집/次韻하는 시 속에, 석경세여선 석아동시유.(바위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 내가 어려서 놀던 곳).<sup>2)</sup>

\* 1779년 천진암강학 당시 약용17세, 약종19세, 약전21세, 이승훈23세, 이벽성조25세였습니다. 특히 정약전이 역수지학과 기하원본 등을 이벽 성조에게 배웠다고 합니다.(참조: 선중씨[정약전]의 묘지명: 嘗從李檠游. 聞曆數之學. 究幾何原本).

4> **천진암 독서처:** 1797년에 정약용은 ‘동부승지사직소’를 올리기 전에, 천진암을 다녀가면서 기록해 놓은 다산시문집 제3권, ‘단오일배이형유천진암’ 시문 속에, ‘이벽독서유유처李檠讀書猶有處’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곧 이벽이 천진암을 독서처로 삼아 공부하였다는 뜻입니다.

\* 참조: 독서처 <- 독서당=동호당(동호대교 건너 -옥수동산자락에 있는 아파트 앞에 동호당터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독서제도였습니다.) 지금의 독서와는 달리 수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곳을 독서당/독서처라 하였습니다.

+이벽 성조에 대한 추도시를 지은 바가 있는 초정 박제가는 봉선사에서 독서했다고 합니다.

**\*\* 김학렬의 추정에는 이벽 성조의 이 천진암 독서처에서 성령강림이 이루어진 것(즉 intellectual miracle)이며, 성교요지와 천주공경가도 여기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참조: 폐낭 신학교 교과서(1770-외딴 절에서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과) + 롱포드의 한국사에서는 13년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1770-1783).

2) 참조: 해제 석천(즉 申綽신작)유고.: 1824(갑신)년 4월, 丁若鏞과 天真庵에 올라가다. 또한 1826년 6월에, 丁若鏞 등과 石湖亭(주: 경안천 합류 지점) 주위를 유람하다.

5>. 창립선조 5위 묘약: 녹암 권철신의 묘지명에, “석재기해동 강학우천진암주어사 설중이 벽야지 장축담경 기후7년이방생(즉 명례방 집회와 비교되는) 차소위성연난재야.”라 하였습 니다.

\* 묘지명과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 기록을 정리하면, 이벽 성조가 주어사로 먼저 갔다가(즉 험한길과 허탕) 마침내 천진암강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목적지를 잘 못 알아, 곧 ‘절을 착각하여(trompé de pagode)’ 주어사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레 신부와 다블뤼 주교의 기록이 서로 다를 때는 다블뤼의 기록을 우선 선택해야합니 다. 조선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달레는 다블뤼의 기록을 받아 그저 각색한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달레는 ‘길을 잘못 들어(trompé de chemin)’<sup>3)</sup> 다른 곳을 찾아간 것으로 기 술하였으나, 이벽 성조는 천진암에 독서처를 두고 있었고, 따라서 이 지역 지리에 밝았으 므로, 길을 잃고 헤매었을 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 10일 동안의 강학과 실천이 뒤따랐습니다.:** 창립선조들은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를 받 아들여 앞드려 기도하였고, 주일을 지켰으며, 단식과 금육재(abstinence)를 실천했습니다. 이는 곧 천진암에서 기도하는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으므로,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후대에 천진암성지를 찾는 노력은:** 남종삼 성인의 손자 남상철 회장님의 노력과<sup>4)</sup> + 주 재용 신부님과 정원진 신부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sup>5)</sup>

\*\* 1976년 여름부터 김학렬은(부제) 변기영 본당신부를 따라서 천진암을 방문하였습니다. + 광주(경안)본당 유진선 신부가 판공 중에 (분당 태재 고개 넘어) 목리에서 경주이씨 족보 를 발견하여, 변기영 신부에게 이벽 성조의 집안 족보를 알려 주게 됩니다.

++ 이를 바탕으로 변기영 신부의 실로 기적적인 이벽 성조의 묘 확인과 발굴이 있었고, 이 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1979.6.24.11시 주일 추도미사(노기남 대주교 공동집전) 후에 천진 암성지에 안장하였습니다.

\*\*\* 설명후 주모경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6>. 계단을 내려와 빙천수: 겨울 강학 때 사용하던, 얼지 않는 샘물 마시기!

참조: 성교요지 29,6.: 갈의염충 (신앙의 목마름 해소).

3) 달레는 프랑스어 원문 1권 2장 14쪽에서, 다블뤼의 “trompé de pagode를 trompé de chemin.”으로, 곧 ‘길을 잘못 들었다.’고 바꾸어(변개) 기술하였다. 일찍부터 이벽은 여러 해 동안 천진암에 독서처를 두었었기에,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벽이 천진암 을 찾아가면서 길을 잃고 헤맬 리는 없었다.

4)<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57365>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57368>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57377>

5) 남상철 회장과 정원진 신부, 그리고 주재용 신부와 변기영 신부의 만남(1973년 봄)에 대해서는 천진 암성지 > 역사자료실 130번 (2017.10.18) 글 참조./2023.8.1. 사진 지도 안뜰!  
[http://chonjinam.or.kr/client/form/viw.asp?p\\_idx=253&cpage=2&Search\\_code=0&Search\\_text=](http://chonjinam.or.kr/client/form/viw.asp?p_idx=253&cpage=2&Search_code=0&Search_text=)